

■ **현장과 시각** ■

반갑다, 기아차 노사의 변화



이종태

경제부 부장

기아차 광주공장이 올해 아무진 출발을 했다. 연초 시무식을 통해 노사는 올해를 '초일류 공장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내년 40만대 생산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다짐을 굳게 했다.

특히 노사는 지난해까지 17년 연속파업으로 인해 내수·수출·기업이윤 등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노사화합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실천강령도 내놓았다. 백번 들어도 반가운 소식이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새출발을 지역민들이 거는 기대도 적지 않다.

광주공장에 이어 기아차 본사에서도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노사전면위원회 2기' 출범식을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진데 이어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사화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노사간 첨예한 대립으로 사사건건 충돌하다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 미국 자동차 업계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해외시장은 커녕 국내에서조차 시장점유율 50%선이 무너지면서 일본 자동차 업체에 안방을 내준 미국 자동차 업계 '빅 3'(GM·포드·크라이슬러)의 신세아말로 광주공장예겐 타산지식이 아닐 수 없다.

광주공장의 노사문화도 이제 변화해야 한다. 변화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노사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야 적지에서 벗어나고 흑자살림을 꾸릴 수 있다.

그러자면 노사 스스로 광주만의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일원이라는 자부심부터 갖는 일이 중요하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의 고리를 끊어내는 용단도 필요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조는 명분없는 파업에 대해 다시 한번 고뇌하고, 사측은 투명한 경영과 함께 노조원에 대해 무한한 배려와 신뢰를 보여줘야 파업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기아차가 올 1월 한달간 차량 판매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8% 증가했다는 것은 적자 탈출을 위한 청신호로 읽혀진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파업으로 인해 생산라인이 멈춰선다면 초일류 공장으로 도약하기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내년 40만대 생산도 물 건너갈 수 있다.

일본 도요타의 57년 무분규를, '세탁기의 벤츠'로 불리는 독일 가전업체 '필레'의 108년 노사화합을 예 광주공장이라고 할 수 없겠는가.

광주공장은 올해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앞두고 있다. 아무쪼록 노사가 지혜를 모아 '초일류 공장 도약의 원년'과 함께 '무분규 원년'의 기록을 세웠으면 한다.

/ jilee@kwangju.co.kr

힐러리 버지니아에 승부수

美대선 '포토맥 경선'... "3개주 모두 오바마 우세"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대역전극을 펼칠 것인가"

지난 주말 경선에서 전패를 기록,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의원이 12일(현지시각)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등 이른바 '포토맥 경선'에서도 고전이 예상되자 버지니아주에 승부수를 띄웠다.

현재의 판세를 감안할 때 흑인 수가 많은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주에선 승산이 희박하다고 생각되지만 버지니아주에서 한번 승부를 걸 한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힐러리 캠프는 메릴랜드와 워싱턴 D.C.에서의 게임은 사실상 포기하고 버지니아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게 선거전문가

들과 CNN 등 미 언론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11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는 세 곳 모두 오바마의 우세로 나타나고 있어, 힐러리로서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셈이다.

대의원 수는 버지니아가 83명으로 가장 많고 메릴랜드가 70명, 워싱턴 D.C.가 15명씩이다.

앞서 메이슨-딕슨 여론조사연구소가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버지니아주에서 오바마는 53% 대 37%로 힐러리에 16%포인트, 메릴랜드주에선 53% 대 35%로 18%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워싱턴 D.C.의 경우 흑인 유권자가 절반을 넘어 이번이 없는 한 오바마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들 3개 주는 흑인 비율이 높

을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이 높고 부자인 백인 민주당 유권자들 수가 많아 오바마에겐 낙승이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힐러리는 경선 중반 최대 전략지 중 하나인 버지니아에서 '오바마 돌풍'을 꺾지 못한다면 내달 4일 텍사스주, 오하이오주 등 4개 주의 '미니 슈퍼화요일'에서의 승리가 낙관하기 힘들다고 판단, 버지니아에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특히 힐러리 진영은 북버지니아의 백인 교외지역 여성들과 라티노, 연방 공무원들, 남부 및 서부 버지니아에선 빈곤층과 시골지역 백인 유권자들에게 내심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을 대거 투표장으로 끌어들이어 오바마가 버지니아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만은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복안이다.

/연합뉴스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 의원이 지난 10일(현지시각) 버지니아 티운홀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며 응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상원 이명박 당선 축하 결의안 13, 14일째 처리

지난 7일 미국 하원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상원도 이르면 13, 14일째 이 당선인 당선 축하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미 의회에서 한국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미 의회가 동맹국 최고 지도자의 당선을 축하하는 결의안을 상·하원에서 동시 채택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 의회에 정통한 소식통은 11일 "지난

주 미 하원이 이 당선인 당선 축하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상원도 이번 주에 주무 상임위원 외교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 신속처리절차(hot-lining)를 밟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에 따라 상원은 13, 14일째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안전처리절차를 중요시하는 미 의회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상임위 심의 없이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키로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中 '가짜 쇠고기' 파동

일본에서 발생한 '농약만두' 파문으로 중국산 식품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싸구려 햄 등으로 만든 가짜 쇠고기마저 등장했다.

12일 인터넷 사이트 왕이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국 장쑤성 수첸시의 공상국은 한 시장에서 물품들을 조사하던 중 80kg 분량의 가짜 쇠고기를 적발했다. 이 고기는 값싼 햄에 밀가루 및 소량의 쇠고기를 섞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가짜 쇠고기 제조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관리 당국은 추정하고 시장 단속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성공한 이민 남매 결국 범죄인으로

김경준 민사소송 패배 이어 에리카 김 유죄 확정

"성공한 미국 이민 1.5세대에서 범죄인으로 전락한 김씨 남매."

작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BBK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41)씨가 미국 내 민사소송에서 패한 데 이어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44)씨에 대해서도 미 법원이 유죄를 확정하자 동포사회는 이들 남매를 이처럼 평가했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미 연방법원의 피어시 앤더슨 판사는 11일(이하 현지시각) 사문서 위조와 허위 세금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에리카 김씨에 대해 보호관찰 3년에 자택연금 6개월, 사회봉사 250시간 및 하루 동안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김경준씨는 1주일 전인 지난 4일 읍서날개피탈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비록 항소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김씨 일가측으로 하여금 무려 663억2천680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에리카 김씨마저 범죄인이 되고 만 것.

변호사 누나에 '금융전문가' 남동생으로 동포사회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공 가도를 달려온 이들 남매에 대해 미 법원이 잇따라 패소 판결을 내리자 동포사회나 국내 정치권은 활동기간을 2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정호영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당시 대통령 후보)을 BBK 의혹사건에 연루시키면서 이 당선인에게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씨와 에리카 김씨의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점이 정호영 특검팀의 수사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이다.

/연합뉴스

차기 주한美사령관

샤프 합참본부장 내정

버웰 B. 벨 주한미 군사령관이 올 여름 퇴임하며 후임에는 윌터 L. 샤프 미 합참 합동참모본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군사소식통은 벨 사령관이 올 여름에 퇴임할 예정이며, 후임으로 샤프 합참 합동참모본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조만간 공식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 본부장은 지난 1996년 6월부터 2년 5개월간 한국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한국 사정에 밝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차기 주한 미군사령관으로 한국사정에 밝은 인사가 내정된 점은 향후 한미동맹관계와 관련해 주목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의 한 군사소식통은 벨 사령관이 올 여름에 퇴임할 예정이며, 후임으로 샤프 합참 합동참모본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조만간 공식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의회내 지한파

랜토스 하원의원 타계

미 의회 내 지한파 인사로 알려진 톰 랜토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민주·캘리포니아주)이 11일 지병으로 타계했다. 향년 80세.

2차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사건인 '홀로코스트' 생존자이기도 한 고(故) 랜토스 위원장은 이날 아침 워싱턴 근교 베데스다 해군병원에서 부인과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린 웨일 대변인이 밝혔다.

고인은 작년 6월 미 의회에서 처음으로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고, 북핵·북한인권 등 북한 문제에도 큰 관심을 보여왔다.



고인은 작년 6월 미 의회에서 처음으로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고, 북핵·북한인권 등 북한 문제에도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인상과 화가 그림 1560억원 어치 도난

취리히 박물관 무장강도 침입

스위스 취리히의 한 박물관에 10일 무장강도들이 침입해 세잔, 드가, 반고흐, 모네의 작품 각 1점씩을 강탈해 달아났다.

이번에 강탈된 작품 4점은 한화로 1천 560억원(미화 1억6천400만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취리히 칸톤(州) 경찰은 11일 그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번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한 박물관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

은 채 '취리히 제8지구'내에 있다고만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경찰이 말한 이 지구에는 취리히의 한 기업가가 창립한 개인 박물관인 에일 뷔를르 재단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 곳은 수많은 인상주의 작품들을 소장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스위스 동부의 한 문화센터에서 450만 달러 상당의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두 점이 도난을 당한 바 있다.

/연합뉴스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한방으로 치료

광정보통단, 하루 2번 간편 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중년 남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염 등 다양한 질환은 한방으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광정보통단은 하루 2번 간편 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한방으로,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염, 노약자 건강 강화

www.kangnam.co.kr

베트남 국제결혼

국제결혼! 선택이 중요합니다

900만 원대로 매달을 맞이하세요

아오자이 국제결혼

062)232-8966
010-5256-8966